MZ세대 약속장소 1위 '수완'…직장인 회식 '충장로'

광주시 상권 분석 결과

감성 술집 등 젊은 상권 급부상
충장로, 직장인 회식 명소로 인기
"젊은이 향하는 곳 새로운 핫플로"

광주 지역 젊은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자) 사이에서 약속 장소로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은 수완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회식 장소로는 충장로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상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동 인구를 기준으로 수완지구대 일대 상권이 MZ세대 약속 장소 1위를 차지했다.

수완지구가 위치한 수완지구대 상권은 10대·20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았고, 이들이 선호하는 트렌디한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해 젊은 층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곳을 찾는 10대·20대 유동 인구는 일평균 9673명에 이르며, 학원(106점포)·식당(58점포)·카페(58점포)가 많았다.

다음 인기 상권은 수완지구 은빛초등학교 일대로, 10대·20대가 이용하는 카페와 학원, 요리주점 등이 들어서 있다.

이어 3위는 상무지구가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정류장 일대였고, 오치동 서산초등학교 상권 4위, 금호동 서구문화원 상권이 5위로 뒤를 이었다.

직장인 회식 장소로는 충장로 금남로4가역 1번 출구 일대가 1위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30~50대 직장인이 주 고객층으로, 인근 직장인 수가 2만9780명에 이르며 저녁 시간대 매출이 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식 장소 2위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첨단지구가 있는 첨단지구대 일대 상권이다. 첨단지구는 유흥주점 270곳, 백반·한정식집 255곳, 요리 주점 192곳이 밀집해 있다.

다음으로는 관공서·회사 등이 밀집한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정류장, 치평동, 상무1동 우체국 상권이 3~5위를 차지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과거 X세대가 모이는 충장로에 사람들이 몰리고 새로운 가게가 생겨났듯이 이제는 MZ 세대가 향하는 곳이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다채로운 감성의 술집과 맛집이 밀집한 첨단지구 등이 젊은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신세계그룹,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식향연' 진행

내달 8일 시작…그리스 탐방도

신세계그룹의 인문학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식향연'이 올해도 '그랜드투어'를 주제로 청년들과 의미 있는 여정을 이어간다.

'2025 신세계 지식향연'은 5월 8일 강연을 시작으로, 6월에는 미션을 통해 인문학 인재를 선발한다. 뽑힌 인재들과 고대 문명의 핵심지인 그리스를 탐방하는 '그랜드투어'를 8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지식향연의 주제는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는 여행, 그랜드투어'이다. '그랜드투어'란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 유럽의 젊은 지식인들이 직접 다양한 도시와 문명지를 순회하며 직접 경험을 통해 교양과 지성을 쌓는 여행형 학습 방식이다.

이번 지식향연은 '그랜드투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고전 문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미래적 시야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오는 5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신세계 남산 트리니티홀에서 열리는 '인문학축제'로 막을 올린다. 전국 대학생 약 780명을 초청해 '그랜드투어'를 주제로 한 강연과 공연으로 인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어 6월에는 영상, 기획서, 창작물 등 자유 형식의 인문학 공모전이 진행된다. 창의적 사고와 표현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의 인재를 선발한다.

선발된 인문학 인재는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8박 10일간 그리스 문명 유적지를 찾아가는 '그랜드투어'를 떠난다.

아테네, 올림피아, 자킨토스, 델포이 등지를 순회하며 고전 문명과 마주하고, 아크로폴리스, 플라톤의 아카데미, 아고라 등을 탐방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고찰한다.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발된 30명에게는 가을 학기 장학금 100만원도 함께 수여된다.

자세한 지원 방법과 인재 선발에 대한 상세 일정 안내는 지식향연 공식 홈페이지(www.ssghero.com)와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hellossghero)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다운 기자

"빚 내서 버틴다"… 자영업자 부채 '소득 3.4배'

작년 4분기 부채비율 2년만 상승
저소득·비은행 대출↑ "대책 필요"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들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이 2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국내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3배가 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매장이 늘어서 있는 모습.

국내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3배가 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LTI는 344.5%로 집계됐다. 이는 자영업자가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로, 같은 시점 비(非) 자영업자의 LTI(220.0%)를 크게 웃돌았다.

자영업자의 LTI는 지난 2022년 4분기 말 350.0%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분기 말 344.4%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해당 시기에 자영업자 소득보다 대출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홀로 증가하면서 경기 불황 취약 자영업자들의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잔액은 1064조2000억원, 차주 수는 311만5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중 고소득 자영업자(상위 30%)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737조원에서 4분기 말 736조8000억원으로, 중소득(30~70%)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94조3000억원에서 192조2000억원으로 각각 줄어든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원에서 135조3000억원으로 홀로 늘었다.

이자 부담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부채의 질도 악화됐다.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641조9000억원에서 4분기 말 640조7000원으로 감소했지만,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22조5000억원에서 42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차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지만 시점이 늦은 데다가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현재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나다운 기자

가정의달 맞이 '5월 동행축제'…최대 30% 할인

2만4000여개 우수제품 참여

중소기업벤처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5월1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동행축제에는 총 130여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2만 4000여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참여한다. 할인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먼저 40개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쇼핑, 지마켓, 오아시스 등)에서 1만5000개 제품을 타임딜과 기획전을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특히, 5월 동행축제에는 소상공인 국가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동행제품 300'이 특별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등 8개 홈쇼핑에서도 소상공인 전용상생 기획전이 열리고,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창고대방출 이벤트 및 할인쿠폰 제공, 포인트 적립 등 특별 프로모션을 펼친다. 이와 함께 10개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을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도 20%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동행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는 세종·춘천·인천·나주 등 전국 4곳에서 5월2~4일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다. 이외에도 전국 18곳에서 순차적으로 문화공연 등 이벤트와 연계한 지역 특별 판매전이 개최되는 등 전국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리게 된다.

한편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제 1169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5	12	24	26	39	42	20

등위	당첨방법	당 첨 금
1등	6개 숫자 일치	28억5273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4245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6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광주신세계, 브랜드 '코치' 팝업스토어 오픈

태비백 등 봄 컬렉션 선봬
'뉴욕 헤리티지' 공간 연출

광주신세계가 본관 2층에 뉴욕 익스프레시브 럭셔리 브랜드 '코치(COACH)' 팝업스토어를 오픈해 눈길을 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가 본관 2층에 뉴욕 익스프레시브 럭셔리 브랜드 '코치(COACH)' 팝업스토어를 오픈해 눈길을 끈다.

이번 팝업은 국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코치가 추구하는 진정성과 자기 표현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치는 1941년 뉴욕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패션 회사이며 가방, 옷 등을 판매한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스튜어트 베버스(Stuart Vevers)'의 비전과 뉴욕의 포용적이고 용기 있는 정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아름다운 것들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작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번 팝업에서는 아이코닉한 '태비백'부터 '체인 태비백'을 포함한 코치 2025 봄 컬렉션과 다양한 코치 아이템들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코치의 본고장인 뉴욕 헤리티지를 그대로 담은 공간 연출을 통해 더욱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치는 최근 젠지 세대들이 사랑하는 'it' 브랜드로 자리 매김하면서 젠지 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마케팅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치의 브랜드 메시지인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용기(Courage To Be Real)'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또 현실적인 순간을 담아낸 캠페인 영상으로 젠지 세대의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모든 순간을 나답게'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2025 봄 캠페인 'On Your Own Time'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나다운 기자